

‘과학’이 ‘실증’된 다이쇼(大正) 생명주의 연구*

— 베르그손의 ‘실증적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유 봉 희**

요약

이 글은 『국제어문』 제94집(국제어문학회, 2022. 9.30)에 발표한 필자의 「진화론과 1920년대 다이쇼 생명주의」에 대한 보론(補論)의 성격이 짙다. 거기서 다하지 못한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의 방법론을 새삼 환기하고자 한다. 특히 과학에 바탕을 둔 ‘실증적 형이상학’에 주목할 것이다. 베르그손은 다윈주의를 비롯해 (신)라마르크주의·정향진화설·돌연변이설 등 당대의 진화이론을 상세히 고찰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엘랑 비탈(élan vital)’이란 가설을 제시했던 것이다. 베르그손은 형이상학과 과학을 구분하지 않았다. “운동은 실제”란 그의 독특한 생명철학은 철저히 과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형이상학과 과학에 대한 베르그손의 인식을 통해 그의 생명철학의 요지를 추출하고, 이를 다이쇼 생명주의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이쇼 생명주의를 낭만주의 시각에 고정시켜 바라보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도출할 생각이 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이쇼 생명주의의 다양한 해석을 차단, 한국 신문학 초기 문학과 사상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본 것이다, 특히 베르그손 생명주의를 메이지에서 다이쇼기에 걸쳐 유행했던 에머슨·오이켄의 철학과 동일시하는 관성을 확인하고, 그 배후를 찾아볼 생각이다. 이것이 베르그손의 ‘과학으로서의 생명주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제어: 다이쇼 · 생명주의 · 베르그손 · 실증적 형이상학 · 과학 · 오이켄 · 에머슨 · 초월주의 · 신비주의 · 낭만주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934)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학술교수

목차

1. 서론
2. 베르그손이 인식한 형이상학과 과학
3. 초월주의·신비주의·낭만주의에 간혀버린 다이쇼 생명주의 연구
4. 다이쇼 생명주의의 배후
5. 결론

1. 서론

근대의 생명주의는 형이상학인가 과학인가? 아니면 둘의 융합인가? 융합이라면 그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글의 요지는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집약될 것이다. 다이쇼(大正 ; 1912-1926) 생명주의가 서구의 생명철학을 수용하면서 전개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의학, 그중에서도 생리학에서 출발했다는 역사성에 주목할 때 위의 질문들은 그 타당성을 얻게 된다. 특히 다이쇼 생명주의를 초월주의·신비주의·낭만주의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 있는 것이 대세인 한국 문학계의 연구 동향¹⁾을

1) 대표적으로 이철호의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종교적 자아 담론 : 靈, 生命, 新人 담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동국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6)를 들 수가 있다. 여기서 저자는 ‘영(靈)’을 ‘생명(生命)’과 연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한국 근대문학 형성 초기에 ‘영’이라는 단어는 근대적 자아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 근대적 어휘는 개인에게 심오한 내면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학적 이념과 형식을 창출해 냈다.(…)근대어로서의 ‘영’은 무엇보다 신비적 종교 체험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개념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1910년대의 청년 세대는 기타무라 도코쿠를 매개로 에머슨의 초월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특히 ‘영’이라는 말에 내포된 그 신비주의적 함의에 깊게 경사되었다. 신비적 종교 체험은 에머슨 사상을 위시하여 이 시기에 유통된 다양한 서구 사상과 문학작품 속에 함유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종교적 자아 담론이 근대문학 형성 초기에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된 합리화의 움직임 속에서 이처럼 비합리적인 신비주의 담론은 어떤 의미와 기능을 지녔던 것인가” 43-44면. 밑줄은 인용자.

고려할 때 이 같은 질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형이상학(形而上學·metaphysics), 한자의 '形而上學'은 '형태 너머의 것을 다루는 학문', 영어 'metaphysics'는 '메타(meta)+피직스(physics)'로 여기서 'physics'는 물리학·자연학·과학 등의 의미로 경험과학을 표상하고 있다. 이것을 넘어서는 메타(meta)로서의 형이상학은 '과학 너머의 세계'를 꿈꾸게 된다. 그래서 초감각적·초월적인 대상이나 원리를 탐구의 영역으로 구획하게 된다. 경험의 세계인 과학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형이상학의 대상이 과학 너머에 있는 이념적(ideal) 세계라면, 과학은 정확히 실증적(positive) 세계일 터다. 이러할 때 형이상학은 과학을 지우면서 나름 그 존재의 의미를 얻게 된다. 특히 지난 20세기 초 과학의 절대성을 불러온 물리주의적 기계론·생물학적 환원론 등에 대한 반발이 다시금 인간 정신을 환기하는 형이상학을 호출했다. 다이쇼 생명주의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두되었던 것이다.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근대문학연구에서 다이쇼 생명주의는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다이쇼 생명주의와 한국 신문학 초기의 영향 관계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특히 1910년대 중반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해 1920년대 초 들어 만개한 '자아'와 '개인'에 대한 담론, 그리고 이와 연동한 한국 낭만주의 문학의 뿌리 등이 다이쇼 생명주의의 수용을 통해 형성됐다는 논의가 일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다이쇼 생명주의가 탈계몽주의 문학의 분기를 촉발했다고 본 것이다. 1920년대 초 문학이 한국 근대문학의 실질적 시작점이란 사실에 주목할 때 다이쇼 생명주의 수용 양상과 그 의의를 파악하는 것은 문학사적으로도 값진 작업일 터다. 이 상황에서 앞서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재차 따져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대문학과 다이쇼 생명주의를 논하는 장(場)에서 과학은 '실증'된 것이 아닌가, 즉 과학에 바탕을 둔 '실증적 형이상학'으로서의 생명철학은 제대로 조명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이쇼 생명주의를 논하면서 베르그손(Henri Bergson; 1859-1941)의 생명

철학을 언급하는 연구는 많지만 그의 대표 표지인 ‘실증적 형이상학’과 ‘과학’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서구 생명주의의 역사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구의 생기론(生氣論·vitalism)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터다. 생명주의와 생기론이 품고 있는 내적 의미가 연대기적으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생기론은 기계론(mechanism)에 대항하면서 출발했다. 생기론과 생명주의를 동치(同値)시킬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그 내포적 의미는 같다고 할 수가 있다. 서양의 생기론은 생명주의가 대두되기 이전인 18세기에 등장했다. 생기론이 생리학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프랑스 ‘몽펠리에 생기론 학파’의 바르테즈(Paul-Joseph Barthez; 1734-1806), 역시 프랑스 병리조직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비샤(Xavier Bichat; 1771-1802)를 생기론의 대표자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의학자들이다. 독일의 슈탈(Georg Ernst Stahl; 1659-1734)의 ‘영혼론(animism)’을 생기론에 위치시키기도 한다. 슈탈은 영혼(anima)을 생명의 원리로 제시했다. 그는 의사이자 화학자였지만 영혼을 실체로 인정하고, 그것이 신체(병리학)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의식과는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 탐구했다. 생기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슈탈의 애니미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했다. 이후 과학적 환원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생명과학의 다양한 시도들을 생기론으로 공격하면서 그 가치를 무력화시켰다. 이렇듯 생기론은 물질과학의 환원주의에 대항하면서 생명과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것이다. 이후 생명주의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1859) 이후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했다. 다윈의 진화론 위에서 정초됐던 것이다. 대표적인 생명주의 철학자로 프랑스의 베르그손과 그의 ‘창조적 진화론’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²⁾

다이쇼 생명주의의 사상적 원천으로 미국 에머슨(Ralph Waldo

2) 줄고, 「진화론과 1920년대 다이쇼 생명주의」, 『국제어문』 제94호, 국제어문학회, 2022, 369-370면 참조.

Emerson; 1803-1882) · 독일 오이켄(Rudolf Christoph Eucken; 1846-1926) · 프랑스 베르그손(Henri Bergson; 1859-1941)을 드는 경우가 많다. 기실 1910년대 중반 『학지광』·『청춘』을 비롯해 1920년대 초반 『백조』·『폐허』 등의 동인지에서도 이들의 이름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국내 근대문학 연구에서도 다이쇼 생명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글 또한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에머슨·오이켄·베르그손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문학 초기(1915-1925)의 생명사상 수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국제어문』 제94집(국제어문학회, 2022.9.30)에 발표한 필자의 「진화론과 1920년대 다이쇼 생명주의」에 대한 보론(補論)의 성격을 지닌다. 거기서 다 하지 못한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을 과학에 바탕을 둔 ‘실증적 형이상학’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이쇼 생명주의를 낭만주의 시각에 고정시켜 바라보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도출할 생각이다. ‘과학으로서의 생명주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글이 문학연구보다는 철학연구에 더 부합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제기가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터, 글에서 인용한 상당수 논문은 근대문학연구 논문임을 새삼 밝혀둔다.

2. 베르그손이 인식한 형이상학과 과학

다이쇼 생명주의의 사상적 원천³⁾의 하나로 평가되는 베르그손은 형이상학과 과학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것은 또한 그의 생명철학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일까? 간단하게나마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근대문학과 관련한 현 단계 다이쇼 생명주의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서두에서 던졌던 “생명주의는 형이상학인가 과학인가? 아니면 둘의

3) ‘사상적 원천’의 하나라 했지만 다이쇼기 수용된 베르그손의 철학은 다분히 일본 중산층 지식인들에 맞춰 재구성, ‘탈근대적’ 성격이 소거된 측면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융합인가? 융합이라면 그 전개 양상은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제시한 철학자가 베르그손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베르그손은 형이상학을 ‘실재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라고 정의했다. 형이상학은 이미 주어져 있는 세계(‘이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 ‘실재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참된 지식 추구’란 말로 요약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에게 형이상학과 과학은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앞서 언급한 ‘meta’일 터인데, 형이상학에 대한 베르그손의 정의에 따를 때 ‘meta’는 과학의 탐구 대상을 넘어선 원리가 아니란 것이다. 베르그손은 철학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정확성(précision)이라 지적했다.⁴⁾ 여기에는 형이상학을 ‘과학을 넘어선 담론’으로 보는 기성 철학에 대한 베르그손의 뿌리 깊은 회의가 있었던 터다.⁵⁾

이 지점에서 들뢰즈가 저술한 『베르그손주의』 중에서 ‘형이상학과 과학’에 대한 그의 견해는 요긴하다. “베르그손은 과학이 마치 공간·고정성·부동성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과학을 비판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절대’는 두 개의 ‘반쪽’을 가지며, 과학과 형이상학은 그 각각에 상응한다고 생각했다.(...)베르그손에게 과학은 결코 ‘환원주의

4) 조현수,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베르그손의 대답」, 『철학사상』 제35집,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10, 218-219·223 참조.

5) 칸트 이후에 과학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도 도전할 수 없게 되었다. 베르그손은 이러한 일종의 학문적 분업 현상이 사실은 모든 것을 뒤섞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과학에 의한 철학의 종속이 된다. 사실에 관한 것을 과학에 일임하면서 철학은 과학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제들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과학철학 또는 인식론이 과학의 유희론적 또는 환원주의적 태도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철학은 과학적 작업의 본성을 탐구하고 과학이 별로 관심 두지 않은 근본 원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탐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과학의 무의식적 전제들을 명확한 언어로 정식화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철학은 최고 법정의 역할을 자부했지만 사실은 도장이나 찍어주는 서기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다. 황수영, 『베르그손 지속과 생명의 형이상학』, 이룸, 2003, 178면.

적이지 않으며, 반대로 형이상학을 요구한다. 그것이 없다면 과학은 의미나 직관을 빼앗긴 채 추상적인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⁶⁾ 그는 또 “베르그손은 철학을 절대적으로 ‘엄밀한’ 분과로 세우기 위해 직관의 방법에 기대를 걸었다. 즉 과학이 자기 영역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영역에서 엄밀하며 과학 그 자체만큼이나 지속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 분과로 세우기 위해서 말이다.”⁷⁾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기서 들뢰즈가 말한 ‘엄밀한’은 필자가 앞서 언급한 ‘실증적(positive)’이란 말과 같은 터, 베르그손에게 형이상학과 과학의 경계는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렇듯 베르그손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지녔던 형이상학과 과학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갈아엎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베르그손은 자신의 생명철학을 전개해 나갔다. 서양 철학사에서 생명에 대한 개념 설정은 베르그손이 저술한 『창조적 진화(Évolution créatrice)』(1907)에서 본격 제기하기 전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었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생명에 대한 이론은 곧 생명에 대한 인식”임을 역설했다. 자신의 형이상학이 생명 개념 위에서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의 생명 인식의 방법은 실증적이었다. ‘사실들의 선상(sur les lignes des faits)’에서 실행됐던 터다. 베르그손은 다윈의 진화론에 주목했다. “생명은 생겨난 이래로 유일하고 동일한 약동의 연속이며 그 약동이 진화의 분기하는 노선들로 나누어진 것이다. 일련의 창조가 연속적으로 부가되어 무언가가 성장하고 발달해 왔다.”⁸⁾ 베르그손은 다윈주의를 비롯해 당대의 진화이론을 상세히 고찰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엘랑 비탈(élan vital)’이란 가설이 제시됐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베르그손을 서구 생명주의의 원조로 볼 수가 있다.

베르그손의 형이상학과 과학에 대한 인식을 바탕에 두고 베르그손·에

6) 질 들뢰즈·김재인 역, 『베르그손주의』, 문학과지성사, 1996, 162-163면.

7) 질 들뢰즈·김재인, 위의 책, 10-11면.

8) 앙리 베르그손, 황수영 역, 제1장 「생명 진화에 관하여」,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98면.

머슨·오이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이쇼 생명주의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한국 근대문학연구에서 다이쇼 생명주의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00년대 들어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물꼬는 ‘영혼’과 ‘생명’을 중심 주제로 한 이철호의 연속적 연구로부터 비롯했다.⁹⁾ 이후 다이쇼 생명주의를 한국 시사(詩史)의 맥락에서 탐구하는 최호영의 일련의 연구가 이어졌다.¹⁰⁾ 다이쇼 생명주의와 관련해 오스기 사카에를 중심으로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을 분석한 유병관의 연구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¹¹⁾ 역사학에서는 오스기와 관련한 김병진의 연구가 주목된다.¹²⁾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이어졌다.¹³⁾ 이들의 연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
- 9) 이철호, 「1910년대 후반 청년지식인들의 기독교적 ‘生命’ 인식-《學之光》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78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7 ; 「1910년대 후반 도쿄 유학생의 문화 인식과 실천-『基督靑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5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8 ; 「신경화과 비평의 낭만주의적 기원-김기진과 박영희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38권, 민족문학사학회, 2008 등. 이외에도 ‘생명’과 관련한 이철호의 논문은 상당수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가 『영혼의 계보—20세기 한국문학사와 생명담론』(창비, 2013)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 10) 최호영, 「한일 상징주의론의 전개와 ‘생명’ 개념 도입의 비교 고찰」, 『어문론총』 제68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 「인생(人生) 개념의 정립과 한일 근대문학관 형성에 관한 비교 고찰—life의 번역과 ‘생명’ 개념의 정착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제104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18 ; 「혁명의 사상 문학의 사상-오스기 사카에(大杉榮)의 아나키즘과 『학지광』 문인의 아나키즘 문학사상」, 『일본학』 제52집, 동국대일본학연구소, 2020 등이 있고, 다이쇼 생명주의를 한국시사(詩史)적 맥락에서 탐사한 저서로는 『한국 근대문학의 저변과 생명의 심연 : 동아시아 생명 사상과 한국 생명주의 문학의 지평』(어문학사, 2018) 등이 있다.
- 11) 유병관, 「1910년대 일본의 개인주의와 아나키즘-오스기 사카에(大杉榮)와 『근대사상(近代思想)』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제20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1 ;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정에서 아나키즘이 갖는 의미와 영향-일본의 문예사상과 관련하여」, 『국제어문』 제71권, 국제어문학회, 2016 등.
- 12) 김병진, 「오스기 사카에의 ‘혁명적 생디칼리즘’—운동 주체의 변혁에 바탕을 둔 혁명관」, 『일본역사연구』 제39집, 일본사학회, 2014 ; 「20세기 전환기 자유의 각성과 생명의식=월경의 사상이 오스기 사카에」, 『일본문화연구』 제62호, 동아시아일본학회, 2017 등.
- 13) 권정희, 「생명력과 역사식의 간극—김우진의 ‘생명력’의 사유와 일본의 생명담론」, 『한국민족문화』 제40권,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 이행미, 「엄상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생명의식의 변모양상 연구」, 서울대 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1 ; 권철호, 『『만세전』과 초

문학사적 맥락에서 생명 개념의 변천을 분석, 낭만주의 문학의 기원을 탐색하는 것이 그 첫째이고, 다이쇼 생명주의를 아나키즘·신이상주의·문화주의·상징주의 등 시대 담론·문예사조와 연결, 한국 신문학 초기의 사상적 흐름을 탐구하는 담론 연구, 그리고 개별 작가의 다이쇼 생명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 등이다. 이 글은 예시한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생명주의를 한국 문학사 측면에서 접근한 이철호·최호영의 학위 논문·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개별 작가들의 생명주의 수용을 탐색한 다른 논문을 더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3. 초월주의·신비주의·낭만주의에 갇혀버린 다이쇼 생명주의 연구

우선 다이쇼 생명주의를 논하면서 에머슨·오이켄·베르그손을 동일선에 놓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들의 사상의 특질·수용 시기(일본), 그 역사적 배경 등을 파악할 때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에머슨·오이켄·베르그손은 각각 미국·독일·프랑스 등 국적도 달랐으며, 생몰 연대에서도 최대 50년이 넘는 시차를 보였다. 이들의 철학은 에머슨은 메이저(1868-1912), 오이켄은 메이저 말을 거쳐 다이쇼(1912-1926) 초기, 베르그손은 다이쇼기 전체를 관통했다. 일본의 수용 시기에서도 시차를 보였던 터다. 특히 철학적 측면에서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된 특성이 존재하는가? 데카르트의 기하학·물리학에 바탕을 둔 기계론과 합리론 등에 저항하면서 유심론에 관심을 보인 점 등은 공통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지만 그 사상적 배경은

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제52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이화진, 「조명희의 「낙동강」과 그 사상적 지반—낭만성의 기원」, 『국제어문』 제57권, 국제어문학회, 2013; 유봉희, 「진화론과 1920년대 다이쇼 생명주의」, 『국제어문』 제94집, 국제어문학회, 2022 등.

각기 달랐다. 에머슨의 초월주의가 칸트철학에 기초했던 반면, 베르그손은 칸트철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¹⁴⁾ 오이켄 또한 칸트로의 회귀를 주장한 신칸트학파로 볼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중 베르그손 외에 누구도 ‘생명 현상’ 자체에 주목해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여기서 베르그손의 철학을 ‘탈근대적’이라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생명주의로서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쇼 생명주의의 기존 연구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치 않은 가운데 이들의 철학을 낭만주의적 시각에 고정시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것은 다이쇼기 유행했던 신이상주의·문화주의·인격주의·문화주의 등에 생명주의를 하나의 계열체로 편입시키려는 관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생명주의의 독자성을 외면한 독해일 가능성이 있다. 신칸트학파의 이상주의 철학은 다이쇼기 철학사상의 주류로 문화주의의 방법론이자 인격주의의 근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상 상황은 자연주의의 급격한 발흥에 이어 곧 그 막다른 길에 처했던 일본의 메이지 말년의 사상 상황과 유사한 것이었고, 따라서 신칸트학파의 철학이 일본에서 환영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신칸트학파의 이상주의는 비스마르크의 주도하에 국가 통일을 성취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갔던 후진 자본주의국가 독일에서 중산계급의 철학으로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러일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독일과 비슷하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일본 사회의 중산계급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최적의 보

14) 베르그손의 칸트 철학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그의 긴 저술 활동을 거쳐 매우 심도 있게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 골자는 일관성을 보인다.(...)필자는 베르그손의 경우 외에는 그 어느 철학자에게서도 칸트의 “비판주의 철학”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접한 일이 없다. 우선 한 마디로 말하면, 그 현저한 차이는 그들의 서로 다른 철학의 방법론에서 찾을 수 있다. 칸트가 공간의 철학자라면, 베르그손은 시간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염승섭, 「생철학의 지평 : 딜타이와 베르그손-칸트, 헤겔, 슐라이어마허, 하이데거, 사르트르와 연관지워」, 『독일학연구』 제29호, 동아대 독일학연구소, 2013, 72면.

급체를 발견하여 철학사상의 주류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¹⁵⁾

일본에서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가 1913년 번역된 후 2년 만에 4쇄를 찍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지만 그의 생명철학은 단 한 번도 일본 지식 사회에 주류로 등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대표작들이라 할 수 있는 『의식에 직접 주어질 것들에 관한 시론』(1889), 『물질과 기억』(1896), 『창조적 진화』(1907) 등에 관한 글들이 다이쇼 초기에 다수 발표되었고, 베르그손 해설서 또한 여럿 출간되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다.¹⁶⁾ 특히 다이쇼기 문학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구리야가와 하쿠손(廚川白村)의 『근대문학십강』(1912)에서 현존 최대의 철학자로 베르그손을 소개하면서 지식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문제는 베르그손의 철학을 다이쇼기 유행하던 신낭만주의·신이상주의·인격주의 등 정신적 차원으로만 수렴하려는 지적 분위기에 있다. “우리가 실재라고 하는 것에 부여할 수 있는 궁극의 의미는 곧 동요이고 유전(流轉)이다.(…)유전, 동요의 세계에 처하여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분투하고 맹진하며 절대로 퇴군을 외치는 억압적인 세계의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전후좌우로 분주하게 모든 저항을 물리치고 모든 장애를 배제하고 공동공격을 시도하는 대군이다.”¹⁷⁾ 하쿠손은 『근대문학십강』에서 베르그손 철학의 핵심 개념인 지속·기억 등을 누락한 채 그가 강조한 ‘운동’을 인간의 창조적 자발성에 초점을 맞춰 인격주의를 강조했던 터다.¹⁸⁾ 여기서 1917년 『학지광』에 발표된 전영택의 「舊習의 破壞와 新道

15)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역, 『근대 일본사상사』, 소명출판, 2006, 273-274면 참조.

16) 나카자와 린센(中沢臨川)의 『베르그손』(1914), 노무라 와이한(野村隈畔)의 『베르그손과 현대사조』(1914), 미우라 테쓰오(三浦哲郎)의 『베르그손의 철학』(1914), 다테 겐이치로(伊達源一郎)가 엮은 『현대총서 베르그손』(1915)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다. 베르그손 철학의 일본적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宮山昌治, 「大正期におけるベルクソン哲学の受容」, 『人文』第4号, 学習院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05, 참조.

17) 구리야가와 하쿠손, 임병권·윤미란 역, 『근대문학10강』, 글로벌콘텐츠, 2013, 284-285면.

18) 위에서 언급한 「大正期におけるベルクソン哲学の受容」 논문의 필자 또한 다이쇼기 베르그

德의 建設을 예시하면서 ‘생명’을 ‘영(靈)’과 동일시 또는 호환하는 다음의 글을 보자.

‘생명’이라는 어휘는 전영택의 글이 예증하듯이, ‘영’에 대한 철학적 해명과 문화적 승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조성되어 널리 유통된 측면이 강하다. 인간 내부의 핵심적인 심리 요소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어떤 무한한 절대자와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이 단어 역시 신문학 담론에서 ‘영’만큼이나 범상치 않은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영’은 곧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 단어는 공통적으로 근대적 자아 발현의 핵심 요소를 지칭한다. 요컨대,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영’과 ‘생명’이 서로 호환되어 사용되는 과정과 두 용어가 보유했던 문화적 활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¹⁹⁾

여기서 ‘영’은 ‘영혼’과 등치되며 ‘생명’은 ‘영혼’의 맥락 속에서 배치되는 계열체에 해당한다. “어떤 무한한 절대자와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이 단어”란 표현, 이것은 ‘생명’, 즉 다이쇼 생명주의를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낭만주의로 전체를 감싸려는 관성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할 때 그 어떤 성격의 생명주의도 논의의 대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베르그손의 ‘실증적 생명철학’ 또한 이러한 흐름 속으로 수렴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만다. 이철호는 “낭만적 상상력으로 충만해 있던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세련되게 이론화하고 그것에 풍부한 철학적 함의를 부여함으로써 결국 그 시대를 대변하는 말로 정착시킨 인물은, 잘 알려진 것처럼, 교토(京都)학파의 거두 니시다 기타로(西田

손의 수용이 유심론 쪽으로만 치우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다이쇼기 베르그손 수용이 베르그손 철학의 핵심을 비껴간 채 당대 신낭만주의의 지적 분위기로 수렴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19) 이철호, 『韓國近代文學의 形成과 宗教的自我談論—靈, 生命, 新人談論의 展開樣相을 中心으로』, 동국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6, 50-51면.

幾多郎)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생명’이 베르그손의 지적 계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²⁰⁾ 그는 “1910년대 후반 조선의 청년 지식인들은 니시다 기타로가 일본적 맥락에서 번안하고 집성한 베르그손의 생명철학 사상에 적잖이 침윤되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²¹⁾

니시다가 베르그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생명의 운동성, “운동 즉 실재”란 베르그손의 관점에 공감하면서부터다. 기실 니시다 저술에서 베르그손은 여러 번 언급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판의 횟수는 늘어만 갔다. 생명 운동 자체를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흐름’으로 보느냐의 철학적 안목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베르그손과 니시다 생명철학의 본령을 혼드는 것으로 둘을 동일시할 수 없게 한다.²²⁾ ‘순수지속’과 ‘엘랑비탈’은 베르그손 생명철학의 핵심 개념이었던 터, 허우성이 말하는 바처럼 니시다에게는 자기 철학의 완성을 위해 ‘장소’와 ‘논리’의 개념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두 개념을 찾아가면서 니시다는 처음 공감했던 베르그손과 결별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둘 사이의 간극을 보인 ‘장소’, ‘논리’, ‘흐름’은 무엇인가? 니시다 철학을 이 세 개념에 맞춰 해석한다면 ‘장소’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 공간은 ‘논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베르그손의 공간 개념은 이와 배치된다.

베르그손의 철학은 이전의 철학이 시간을 공간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출발했다. 대신 ‘지속’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은 아파르트와 같은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흐르는 것”이

20) 이철호, 앞의 논문, 57면.

21) 이철호, 위의 논문, 58면.

22) 니시다의 순수경험 직접경험 또는 절대무(絶對無)의 자각(自覺)이란 말은, 저 한 순간의 생명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지속이나 흐름이어서는 안 된다. 빙결(氷結)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니시다가 한때 좋아했던 베르그손을 비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에 대한 비판은 니시다의 ‘장소(場所)’라는 논리적 공간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장소는 곧 정지·빙결·완전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순수지속과 엘랑비탈에는 흐름만 있고 공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허우성, 『근대 일본의 두 얼굴 : 니시다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0, 104-105면.

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이나 ‘현재’와 같이 시점을 특정해 어느 한 축에 시간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필자가 논문을 쓰고 있는 이 시점의 내면 상태는 어떠할까? 오로지 글자만을 바라보고 생각할까? 집중하지만 산만하고, 아주 예리하지만 허망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처음을 더듬고 하는 즉, 이질성들로 가득 차 흐르는 것이 베르그손이 말하는 ‘실재하는 시간’이며, 이는 공간화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베르그손은 『의식의 직접 자료에 관한 시론(*E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conscience*)』(1889)에서 “진실로 말하자면 진정한 지속은 양이 아니며 사람들이 이를 측정하려고 하자마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진정한 지속에 공간을 대체시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점은 니시다가 논리에 대해 집요한 집착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선(禪) 수행과 견성(見性)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낭만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니시다가 논리에 집착했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것 이리라. 니시다가 고교시절 이래 심취해 읽었다는 베르그손을 물리친 이유는, 그리고 자신의 순수 경험이란 개념을 전집 1권 이후에 거의 전적으로 배제해버린 이유는 논리 추구에 대한 니시다의 정열과 심리주의의 배격에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²³⁾ 서양철학을 넘어선 자신만의 독자적 사상에 대한 의지와 욕망 등이 낳은 결과라 할 수가 있다. 논리는 지성을 요구한다. 지성은 부동성을 그 숙명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지성은 운동하는 것을 정지·고정시키고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한 것을 고안한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도구가 대표적 예일 터다. 베르그손은 생명은 운동 그 자체인 실재, 지속이라 강조했다. 이러할 때 지성은 지속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시간을 배제하게 된다. 니시다가 생명의 운동성과 절대무(絕對無)의 세계로 가는 길에 직관을 위치시켰지만 그의 철학은 갈수록 지성과 공간을 요구했고, 이것은 운동성을 상실한 철학으로 남게 된다. ‘직관·지속

23) 허우성, 앞의 책, 131면.

- 운동'의 축인 베르그손과는 배치되는 형국인 것이다.

다이쇼 생명주의 연구에서 낭만주의에 초점을 맞춘 해석과 서양 생명 철학자들에 대한 사상의 동일시는 갈수록 고착화되는 분위기이다. 이것은 다이쇼 생명주의 수용을 단선적으로 접근, 당대 생명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차단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특히 '생명 현상'에 대한 탐구, 즉 베르그손의 과학에 바탕을 둔 '실증적 생명철학'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을 '영혼', '영', '정신' 등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용어와 등치·호환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생명주의의 폭을 스스로 좁힌 결과일 터다. 이 같은 현상은 앞서 살핀 이철호의 연구만이 아니라 다이쇼 생명주의 연구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이쇼 생명주의 연구(시)의 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최호영 또한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1920년대 초기 한국시에서의 송고시학과 생명공동체의 이념』(서울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016)은 이 글의 목적이 "1920년대 초기 한국시의 특수성을 '송고 시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송고 시학이 당대 조선적 현실에서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생명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해명하려는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1920년대 초기 시에서 '자연'은 대상의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무한' 대상의 절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영원' 대상의 불가해성(不可解性)을 나타내는 '신비'의 범주를 동반함에 따라 '미적 원근법'으로 환원할 수 없는 지점에 놓이게 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1920년대 초기 시인들은 자연에 대한 도달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문학적 지표로서 '거리감'을 도입하고 있다 그들은 '미적 원근법'으로 환원할 수 없는 송고한 영역을 발견함에 따라 자신들의 예술을 '진리의 심곡으로 승격시킬 수 있었으며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고 했다.²⁴⁾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용어는 '무한', '영원', '신비' '거리감' 등으로 낭만주의적 색채가 물씬한 것이다.

24) 최호영, 『1920년대 초기 한국시에서의 송고시학과 생명공동체의 이념』, 서울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016, 국문초록 중에서.

이러한 관점은 톨스토이의 인도주의, 베르그손의 생명철학, 오이켄의 신이상주의, 에머슨의 신비적 우주론 등을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에머슨·오이켄·베르그손’의 동일시이다. 이들의 철학이 “개인을 기존의 신으로부터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로부터 독립한 주체로 서게 만드는 데 중요한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말하자면, 개인이 인간 본래의 독립한 주체로 서게 만드는 근거를 ‘생명’에서 구하는 경향이 출현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이쇼기 일본의 사상계에서는 세계를 구성하는 중심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를 ‘생명’에 두려는 사조가 출현하는데, 이를 흔히 ‘다이쇼 생명주의’라 부른다”²⁵⁾ 에머슨의 신비적 우주론은 개인을 신과 합일시키려는 강한 종교적 성향을 전제로 성립 가능한 철학이며,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은 다이쇼기 대표적 아나키스트이자 사회주의자였던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에게 사회를 향한 혁명사상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그 외 개별 작가를 다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명과 영을 함께 사용하면서 문학을 통해 ‘육’과의 조화로운 결합을 열망하는 태도는 1910년대 중반 한국 근대문학 형성 초기 문학 세대의 특성인데, 그 기원은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유행한 ‘생명주의’를 강력하게 환기한다.”²⁶⁾ 이어 “1910년대 김억의 문학적 사유와 활동을 움직이는 주요한 동력의 근거에는 일본 다이쇼 시대 베르그손의 생명사상을 수용한 니시다 기타로, 시라카바, 오스기 사카에 등의 사상이 혼합적으로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는 김억이 조선과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관점과 태도를 탐구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²⁷⁾는 등의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25) 최호영, 「식민지시기 박광양 시에 나타난 ‘생명의식’과 미학적 전위의 형상화」, 『한중인문학연구』 제56집, 한중인문학회, 2017, 134면.

26) 김진희, 「20세기초 일본 생명주의와 김억의 문학사상-베르그손 철학의 수용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76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20, 31면.

한 작가의 사상 형성은 여러 이질적 요소가 혼재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만, 화해하기 어려운 두 사상이 공존하기란 참으로 힘든 것이다. 특히 대사회적 발언을 삼가하고 철저히 '내면', '개인'에 몰두했던 다이쇼 대표적 문화예술그룹인 시라카바파(白樺派)와 다이쇼기 '거짓된 내면 탐구'를 폭로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사상을 전파했던 오스기 사카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논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상화의 시적 지향과 배경을 생명인식에 두고 그 사상적 원천으로 베르그손을 지목한 연구에서도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을 에머슨의 내셔널리즘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다. “베르그손 사상은 급격한 근대화에 대한 반근대, 반서양의 사상으로서 보편적인 ‘생명’을 기반으로, 근대를 초월해 새로운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사상으로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내면의 중시와 개성의 해방, 자아의 창출 등과 결합하고, 보편적 자연과 우주와의 합일을 추구했지만, 한편으로 내셔널리즘으로의 경사를 촉진했다.”²⁸⁾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은 ‘반근대’라 보기보다는 ‘탈근대’라 함이 타당할 것이며, ‘보편적 자연과 우주와의 합일 추구’와 ‘내셔널리즘’의 결합은 베르그손의 철학이 아니라 에머슨에게서 찾아야 할 터다. 에머슨은 “자연은 인간 속에 성스러운 정서가 있는가 없는가를 감지하는 온도계와 같은 것”이며,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적인 모습을 띠기 이전에는 언제나 비실재적이고 모방적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²⁹⁾

여기서 에머슨의 초월주의의 시대적 배경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에머슨이 살았던 19세기,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문화와 사상적으로는 영국이나 유럽에 아직도 종속되어 있었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27) 김진희, 앞의 논문, 40면.

28) 유병관, 「이상화의 시에서 '생명(生命)-대정(大正)기 일본의 생명주의와 관련하여」, 『한국문학사 연구』 제30집, 한국문학사연구회, 2019, 297면.

29) Ralph Waldo Emerson, *Essays Lectures*, New York : Library of America, 1983, 554면.

는 자기만의 국가 정신이 필요했다. 그는 30대 중반부터 시작한 40년간의 강의로 미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하려면 유럽으로부터 사상적으로 독립할 것과 미국인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다. 에머슨에게 이는 철학, 문학, 과학의 통합을 넘어서 멜팅팟(melting pot)으로서의 미국이라는 단일한 국가주의의 꿈으로 확대된다. 여기서 가라타니 고진의 지적은 날카롭다. “중요한 것은 에머슨이 미국 내셔널리즘의 원조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 같은 건국신화도 이 통일과정에서 완성한 것이지요.(...)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학자나 메이지 정부가 뭐라고 말하든, 일본의 건국신화가 국민적으로 수용된 것은 청일전쟁 무렵입니다. 에머슨을 들먹이면 내셔널리즘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기 일본에서 에머슨이 가장 많이 읽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내셔널리즘인 것이지요.”³⁰⁾

국내 연구자들이 다이쇼 생명주의와 관련해 자주 인용하는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다이쇼 생명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서구의 사상으로 1) 에른스트 헤켈의 생기론, 2) 앙리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 3) 베르그손 철학에 근접하는 윌리엄 제임스의 다원주의적 프래그마티즘, 4) 엘렌 케이의 페미니즘 사상, 5) 크로포트킨의 사상 등을 열거하고 있다.³¹⁾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명주의의 범주가 메이지 말과 다이쇼 초에 포착된 서구의 중요 철학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이쇼 생명주의의 단일 대표자가 없다는 뜻이다. 사다미의 주장 또한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그 또한 생명주의 사상의 일반적 경향으로 신비주의를 꼽았다.³²⁾ 특히 그가 거론한 에른스트 헤켈

30) 가라타니 고진 외, 송태욱 역, 『근대일본의비평』 제1권, 소명출판, 2002, 81-82면.

31) 鈴木貞美, 「大正生命主義とは何か」, 鈴木貞美 編, 『大正生命主義と現代』, 河出書房新社, 1995, 5-7면.

32) 鈴木貞美, 「大正生命主義研究のいま」, 앞의 책, 24면.

은 사회진화론의 선구인 스펜서보다 더 강고한 생물학적 환원주의자로, 독일 국가주의자 중 하나였고,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를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란 개념을 처음 도입한 심리학자로 '흐름(stream)'이란 측면에서 베르그손의 '지속(durée)' 개념과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제임스의 '의식'을 베르그손이 주장한 '생명'과 등치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스즈키 사다미 분석보다 문예평론가인 다나카와 데쓰조(谷川徹三 ; 1895-1989)의 다이쇼 생명주의 분석이 좀 더 설득력을 얻는다. 그는 다이쇼 생명철학을 여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1) 통속화 경향으로의 인생철학, (2) 공리적 성격을 지닌 실용주의 생활철학, (3) 신생기설에 토대를 둔 유기체 철학으로의 생명철학, (4) 창조적 직관을 기저로 하는 베르그손 이후의 현대 생명철학, (5) 닐타이 이후 체험과 이해, 역사적 파악으로서의 생철학, (6) 철학적 인간학과 실존철학 등이 그것이다.³³⁾ 이 중에서 다나카와가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물론 (4)-(6)이다. 여기서 (3)은 '생기론'을 말하는 것이며, (4)는 서구 생명주의의 핵심인 베르그손의 '지속'과 '창조'의 철학을, (5)는 1927년이 되어서야 전 7권으로 출판된 닐타이의 전집 『정신과학에서의 역사적 세계의 구축(Der Aufbau dergeschichtlichen Welt in de Geisteswissenschaften)』에서 보인 생명철학을, (6)은 대표적으로 하이데거의 철학을 말하고 있을 터다. 다나카와는 서구 생명철학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다이쇼 생명주의에 대해 다소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이쇼 생명철학이 오성과 개념·자연과학주의·기계론·물질문명 등을 비판하는 안티테제로서의 공통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것은 다이쇼 생명주의의 일반적 경향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철학적 인식의 통속화를 우려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다이쇼 생명주의는 다분히 낭만주의에 깊게 침잠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³⁴⁾

33) 谷川徹三, 『生の哲學』, 岩波書店, 1933, 7-9면.

34) 줄고, 「진화론과 1920년대 다이쇼 생명주의」, 『국제어문』 제94집, 국제어문학회, 2022,

4. 다이쇼 생명주의의 배후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의 배후는 무엇인가? 메이지기부터 시작된 기독교와 독일 관념론 철학의 영향, 그로부터 파생한 다이쇼기 대표적 문화예술그룹인 시라카바파(白樺派)의 사상적 성격을 통해 다이쇼기 일본 지식 사회의 지적 분위기를 파악해 보겠다. 앞에서 가라타니 고진이 메이지기 에머슨의 수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기 일본에서 에머슨이 가장 많이 읽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내셔널리즘인 것이지요.”라고 한 말을 인용한 바 있다. 일본에서 에머슨의 수용은 내셔널리즘 말고 기독교의 영향 또한 컸다. 한때 유니테리언리즘(unitarianism) 목사이기도 했던 에머슨이 내세운 대표적 철학적 개념은 ‘Oversoul·超越靈·大靈’이다. ‘우주의 대령(大靈)’·‘우주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에머슨의 이 ‘영(靈)’의 개념은 종교적 상상력을 떠나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메이지기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에머슨의 사상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본래적 선을 확신하고, 인간 양심의 지상권(至上權)을 정립하는 휴머니스틱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졌다. 에머슨의 영혼론에 따르면 개인은 언제나 자기에게 내재하는 영혼에 촉발되어 자기를 우주의 대령(大靈)에 합치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길은 신비적인 직관과 자연에 구현된 영혼의 모습을 인식함으로써 도달된다.³⁵⁾ 일본 낭만주의 문학을 개척한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의 『내부생명론』(內部生命論, 1893) 또한 이를 기반으로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도코쿠는 이 책을 통해 매우 독특한 근대문학론을 전개했는데,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는 자신의 저서 『근대일본사상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372-373면.

35) 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이쿠오, 이수정 역, 『일본근대철학사』, 생각의 나무, 2001, 145-146면 참조.

“내부의 생명은 오랜 세월 일정하여 신 말고는 이것을 움직일 수 없고”, 시인이거나 철학자가 하는 일은 요컨대 이 “내부 생명의 갖가지 표현”을 ‘관찰’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 즉 도쿠코가 휴머니티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부생명’이란 어디까지나 천계(天啓)적인 것이지 결코 ‘자조(自造)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관찰’이나 ‘영지영각(靈知靈覺)’, 즉 ‘순간적인 명계(冥契)’인 ‘인스피레이션’-“우주의 정신 즉 신으로부터 인간의 정신 즉 내부생명에 대한 일종의 감응”-을 통해서 비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³⁶⁾

사부로는 도쿠코의 ‘내부생명론’의 많은 부분이 기독교 생명관에서 나온 것이 자명한데, 나아가 그는 당시의 사상계를 “생명사상과 불(不)생명사상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서양적이고 기독교적인 ‘생명사상’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³⁷⁾ 이렇다면 에머슨의 생명사상은 인간이 스스로 독자적으로는 풀 수 없는 타자(他者; the Other)인 신을 상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또한 ‘내면의 절대화’를 통한 타자인 한, 진정한 타자성과 함께 역사성·정치성은 소거되게 마련이다. 도쿠코의 문학관이 구체적 건설 방향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현실과 유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한 비타협적 관념론의 결과일 터다. 이러한 경향은 다이쇼기 대표적 문화예술그룹인 시라카바파(白樺派)에 와서 더욱 도드라진다. 관동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일본 정부는 노동자 계급의 성장, 쌀소동, 일본공산당 출현에 따른 계급투쟁의 격화 등으로 이들을 제압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대지진으로 일어난 사회 혼란은 이들에게 탄압의 기회를 제공했다. 조선인은 물론, 일본의 사회주의자, 인권운동가들 상당수가 희생되었다. 그에 앞서 명치(明治) 천황 암살계획으로 고토쿠슈스이(幸徳秋水) 등 일본의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12명이 처형당한

36) 이예나가 사부로,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역, 앞의 책, 111면.

37) 이예나가 사부로,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역, 위의 책, 113면.

대역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정치·문화 등의 ‘사회적 담론’은 수면 아래로 잠복되었다. 대역사건이라는 강력한 천황제의 이데올로기가 당시 일본 사회문화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담론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문화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³⁸⁾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문화’ 개념이 등장한다. 이 시기를 상징하는 지식인 그룹이 ‘시라카바파(白樺派)’였다. 이들은 문예잡지 『시라카바(白樺)』를 주도했다. 이들은 이상주의적 낭만주의에 심취했다.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1922-2015)는 시라카바파를 일본 관념론의 대표 주자로 정의하기도 했다.³⁹⁾ 『시라카바(白樺)』는 1910년 4월부터 1923년 8월까지 발행된 다이쇼기 최대의 동인잡지로 그 영향력 또한 컸다. 당시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조선의 젊은 지식인층, 이른바 ‘학지광 세대’들도 시라카바파(白樺派)의 사상적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터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인도주의·신이상주의, 나아가 문화주의·교양주의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황족·화족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인 가쿠슈인(學習院) 출신이었다. 이들의 세계관은 다이쇼 교양주의의 핵심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시라카바파가 지향했던 것은 ‘他者’의 시선에 비추어진 적이 없는 자기동질적인 ‘자기(自己)’나 ‘인류애(人類愛)’의 신장이었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 포기, 타자성(他者性) 상실, 자기(自己) 회로에의 칩거 등을 초래했다.⁴⁰⁾ 이들의 사상적 기반은 신칸트학파의 이상주의 철학이었다.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신칸트학파를 낳은 독일의 상황과 메이지 말년에서 다이쇼기에 걸친 일본의 상황이 유사점이 많았기 때

38) 이병진, 「시라카바(白樺)派의 예술지상주의적 세계관」, 『비교문학』 제49집, 한국비교문학회, 2009, 200면.

39) 鶴見俊輔, 「日本の觀念論—白樺派—」, 『現代日本の思想』, 岩波新書, 2005, 3면.

40) 줄고, 「동아시아 사회진화론·입신출세주의·교양주의, 그 관계의 의미망과 1910년대 한국단편소설의 지형도」, 『한국문학과예술』 제30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9, 264면.

문이다. 사실 일본의 아카데미즘 철학은 메이지 20년대 이후 독일철학의 영향권에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이 다이쇼기 사라카바과의 활동을 추동했던 것이다. 이러한 메이지말에서 다이쇼기에 걸친 일본의 지식사회 분위기를 국내 연구들은 근대문학과 다이쇼 생명주에 적용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특히 베르그손 생명철학의 핵심인 ‘지속’과 ‘직관’을 ‘실증적 형이상학’의 시각을 소거한 채 ‘인간의 의지의 발현’이나 역사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을 담아내는 기제로 해석한 점 등은 1920년대 초반 한국문학 해석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남길 터다.

4. 결론

이상에서 에머슨·오이켄·베르그손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문학 초기(1915-1925)의 다이쇼기 생명사상 수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베르그손에게 형이상학은 이미 주어져 있는 세계(이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그에게 형이상학과 과학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문학과 관련한 국내 다이쇼 생명주의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았다. 근대문학연구에서 다이쇼 생명주의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00년대 들어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물꼬는 ‘영혼’과 ‘생명’을 중심 주제로 한 이철호의 연속적 연구로부터 비롯했다. 이후 다이쇼 생명주의를 한국 시사(詩史)의 맥락에서 탐구하는 최호영의 일련의 연구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에머슨·오이켄·베르그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문학사적 맥락에서 생명 개념의 변천을 분석, 낭만주의 문학의 기원을 탐색하는 것이 그 첫째이고, 다이쇼 생명주의를 아나키즘·신이상주의·문화주의·상징주의 등 시대

담론·문예사조와 연결, 한국신문학 초기의 사상적 흐름을 탐구하는 담론 연구, 그리고 개별 작가의 다이쇼 생명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 등이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에머슨·오이켄·베르그손을 철학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면서 이들의 사상적 특질, 일본의 수용 시기 등을 고려치 않은 가운데 동일시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초월적이고 신비적 낭만주의에 방점을 찍은 해석이었다. 물론 에머슨·오이켄·베르그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유심론적이었다지만 이들의 생명사상을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베르그손의 과학에 바탕을 둔 ‘실증적 형이상학으로서의 생명주의’는 실종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었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 글 또한 여러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이쇼기 생명주의 일반과 다른 오스기 사카에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적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오스기의 생명사상은 베르그손의 ‘과학으로서의 생명주의’에 공감하면서 짝퉁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문학과 다이쇼 생명주의 연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외저서

- Ralph Waldo Emerson, *Essays Lectures*, New York : Library of America, 1983, 554면.
- 다니카와 데쓰조(谷川徹三), 『生の哲學』, 岩波書店, 1933, 7-9면.
-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日本の觀念論—白樺派—」, 『現代日本の思想』, 岩波新書, 2005, 3면.
-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 「大正生命主義とは何か」, 鈴木貞美 編, 『大正生命主義と現代』, 河出書房新社, 1995, 5-7면.
- _____, 「大正生命主義とは何か」, 鈴木貞美 編, 『大正生命主義と現代』, 河出書房新社, 1995, 5-7면.
- _____, 「大正生命主義研究のいま」, 『大正生命主義と現代』, 河出書房新社, 1995, 24면.

2. 국내저서

- 가라타니 고진 외, 송태욱 역, 『근대일본의비평』 제1권, 소명출판, 2002, 81-82면.
- 구리아가와 하루손, 임병권, 윤미란역, 『근대문학10강』, 글로벌콘텐츠, 2013, 284-285면.
- 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이쿠오, 이수정 역, 『일본근대철학사』, 생각의 나무, 2001, 145-146면.
- 양리 베르그손, 황수영 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98면.
- 이에나가 사부로,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역, 『근대 일본사상사』, 소명출판, 2006, 111·273-274면.
- 질 들뢰즈·김재인 역, 『베르그손주의』, 문학과지성사, 1996, 10-11·162-163면.
- 허우성, 『근대 일본의 두 얼굴 : 니시다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0, 104-105·131면.
- 황수영, 『베르그손-지속과 생명의 형이상학』, 이룸, 2003, 178면.

3. 논문

- 김진희, 「20세기초 일본 생명주의와 김억의 문학사상-베르그손 철학의 수용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76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20, 31·40면.
- 염승섭, 「생철학의 지평 : 달타이와 베르그송-칸트, 헤겔, 슈라이어마허, 하이데거, 쾰르트르와 연관지위」, 『독일학연구』 제29호, 동아대 독일학연구소, 2013, 72면.

- 유병관, 「이상화의 시에서 ‘생명(生命)’-대정(大正)기 일본의 생명주의와 관련하여」, 『한국문학과 예술』 제30집,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9, 297면.
- 유봉희, 「동아시아 사회진화론·입신출세주의·교양주의, 그 관계의 의미망과 1910년대 한국단편소설의 지형도」, 『한국문학과예술』 제30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9, 264면.
- _____, 「진화론의 철학적 유형분석과 한·중·일 동아시아 수용의 경로」, 『현대소설연구』 제8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34면·제4장 ‘유형별 진화론의 동아시아 수용과 그 성격·창조적 진화론’.
- _____, 「진화론과 1920년대 다이쇼 생명주의」, 『국제어문』 제94호, 국제어문학회, 2022, 369-370면.
- 이병진, 「시라카바(白樺)派의 예술지상주의적 세계관」, 비교문학제49집, 한국비교문학회, 2009, 200면.
- 조현수,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베르그손의 대답」, 『철학사상』 제35집,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10, 218-219·223면.
- 이철호,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종교적 자아 담론 : 靈, 生命, 新人 담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7, 41·43-44·50-51·57-58면.
- 최호영, 『1920년대 초기 한국시에서의 송고시학과 생명공동체의 이념』, 서울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국문초록 중에서, 2016.
- _____, 「식민지시기 박광양 시에 나타난 ‘생명의식’과 미학적 전위의 형상화」, 『한중인문학연구』 제56집, 한중인문학회, 2017, 134면.

<Abstract>

A Study on Daisho's Biologicalism in which
“Science” is “missed”
—Focusing on Bergson's ‘empirical metaphysics’

YU, BONG-HEE

This article has a strong characteristic of the author's "Evolution Theory and Daisho Lifeism in the 1920s" published in the 94th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International Language Literature, 2022). I would like to recall Bergson's philosophy of life, which was not completed there. In particular, it will be noted that 'empirical metaphysics' is based on science. Bergson examined the evolutionary theories of the time in detail, including Darwinism, (new) Lamarckism, clove evolution, and mutation theory. Here, the famous hypothesis of "Ellan Vital" was presented. Bergson did not distinguish metaphysics from science. His unique philosophy of life, "Motor is real," is based entirely on science. First, I would like to extract the gist of Bergson's philosophy of life through his perception of metaphysics and science, and compare it with Daisho Biology. Through this, we intend to derive the problems of existing research that fixates Daisho biologicalism to a romantic perspective. It is believed that these problems prevented various interpretations of Daisho's biologicalism. In particular, we will confirm the inertia of identifying Bergson's biologicalism with Emerson and Oiken's philosophy, which was popular during the Meiji and Daisho periods, and find the background. It is hoped that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discover Bergson's "life as science".

Key words: Daisho, Biologicalism, Bergson, Empirical Metaphysics,
Science, Oiken, Emerson, Transcendentalism, Mystical
Romanticism

투 고 일: 2022년 11월 26일

심 사 일: 202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6일

수정마감일: 2022년 12월 26일